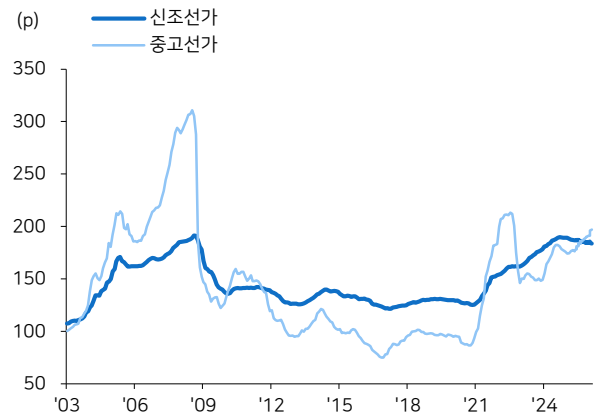
2026. 2. 20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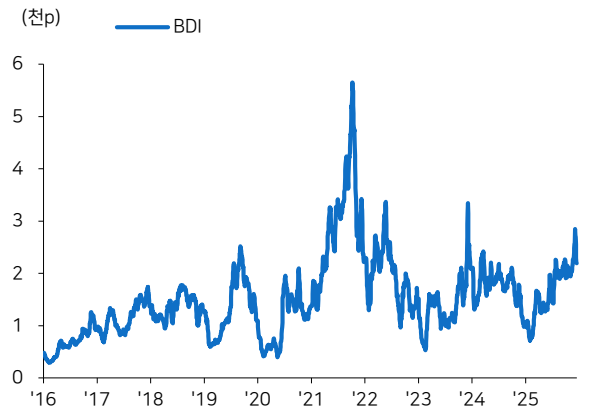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1p (-0.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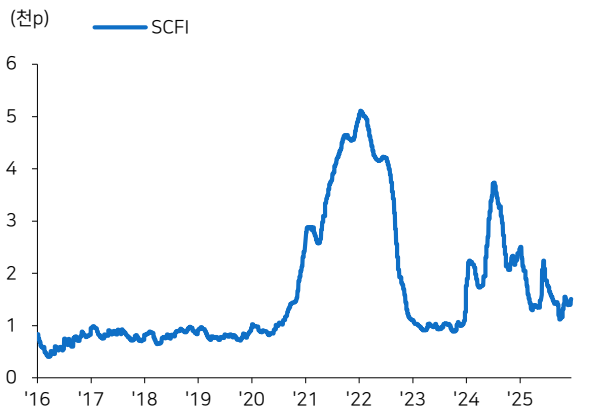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31.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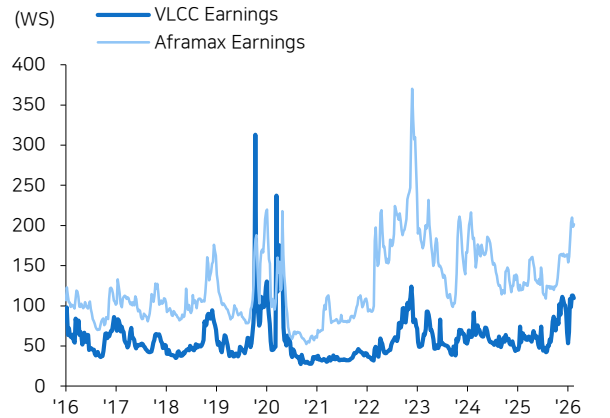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63.0p (-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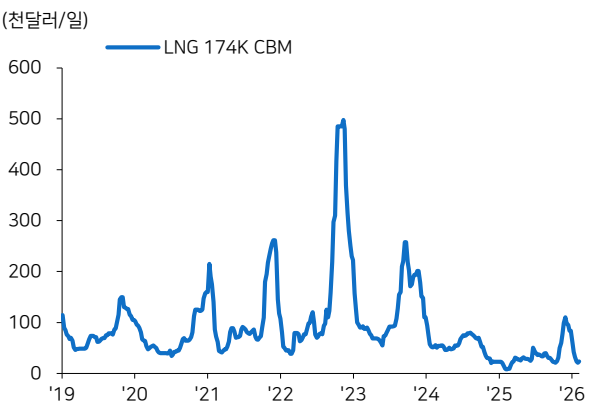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251.5p (-15.1p WoW)



VLCC Spot Rate 109.7WS (-3.0p WoW)



LNG Spot 운임 25.0천달러 (+1.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韓, 대미투자 실무단 美급파…1 호 투자로 '에너지·조선·핵심광물' 검토 (동아일보) https://zrr.kr/TiqoL2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해 투자 후보 사업과 상업성, 추진 절차를 사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대미 투자 의지를 구체화하려는 조치로, 에너지 · 조선 · 핵심광물 등이 1호 프로젝트로 검토된다고 전해짐. 일본이 360억달러 규모 투자안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 역시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 권한을 갖는 구조로, 미국 측의 구체안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고 알려짐.

ExxonMobil set to approach shipbuilders for raft of LNG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C4l1pe

ExxonMobil이 모잠비크 Rovuma LNG(18mtpa)와 미국 Golden Pass LNG 등 신규 물량 대응을 위해 최소 20척, 최대 30척 규모 LNG 운반선 신조 발주를 검토하며 3분기 조선소 접촉 후 2026년 말2027년 초 정식 입찰에 나설 전망이라고 전해짐. 2028년 인도 슬롯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올해만 22척 이상 계약됐고 2029~2030년 인도 물량이 빠르게 차고 있어 조기 인도 확보를 위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됨. 미국 생산업체 ConocoPhillips, Cheniere Energy 등도 선대 확충을 모색하고 있어 2029년 이후 LNG 슬롯 압박이 한층 심화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加 온타리오조선·모호크대 협력…"잠수함 수주 기반 구축" (뉴스 1) https://zrr.kr/MvgcHK

한화오션이 캐나다 온타리오조선소와 전략적 협력 MOU 및 모호크대학과 3자 LOI를 체결하고 설계 · 엔지니어링 자문, 생산 · 품질 관리, 스마트 조선 공정 등 기술 이전을 통해 온타리오조선소의 대형 선박 건조 역량 재건을 지원한다고 보도됨. 양측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포함한 해군 사업 대응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며, 온타리오조선소가 올해부터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기술 지원과 함께 10~15년 확장 · 현대화 계획과 연계한 인력양성 허브 구축에 나선다고 전해짐. 향후 CPSP 수주 시 한화오션은 현지 교육 · 훈련센터 설립과 전략적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캐나다 내 산업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행보로 평가된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인도 코친조선소 동맹 위력 현실화…CMA CGM 컨선 6 척 수주 (더구루) https://zrr.kr/QZKjcQ

HD현대가 인도 코친조선소와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사업에 협력하며, CMA CGM이 발주한 1만7,000TEU급 6척(3억6,000만달러) 건조 과정에서 기자재 구매 등을 지원한다고 보도됨. CMA CGM은 반년 전 체결한 건조의향서 이후 최종 계약을 확정했으며 첫 선박은 36개월 내 인도, 이후 매년 2척씩 순차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HD현대는 이를 계기로 인도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 참여와 함정 협력 확대,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추진하며 인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삼성중공업, 아르헨티나발 세계 최대 FLNG '유력 수주' 후보 부상 (더구루) https://zrr.kr/QZKjcQ

아르헨티나가 Vaca Muerta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연 1,200만톤(mtpa) 규모 FLNG 2기(총 350억달러) 개발을 추진하며 ADNOC 산하 XRG, Eni, YPF가 공동개발협정에 서명하고 연내 FID를 목표로 발주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FLNG 건조 후보로는 삼성중공업과 Wison New Energies가 거론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Eni와의 협력 관계와 기존 FLNG 10기 중 6기 수주, Prelude 인도 등 실적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해짐. 이번 프로젝트는 2029년 첫 수출을 목표로 추가 2기 옵션과 생산량 75% 구매 약정까지 확보한 대형 사업으로, 기당 15억~30억달러 규모의 고부가 설비 수주 경쟁으로 알려짐.

지멘스, HD 한국조선해양 '미래 첨단 조선소' 통합 플랫폼 우선 협력사 선정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5noGVT

Siemens가 HD한국조선해양의 '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 우선 협력사로 선정돼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Siemens는 Siemens Xcelerator를 공급해 CAD · PLM · 디지털 제조 · 시뮬레이션을 단일 데이터 흐름(디지털 스레드)으로 연결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 메타버스 환경과 피지컬 AI 적용을 통해 생산 공정 최적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해짐. 양사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실제 운항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선소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품질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